

참부모님께.

안녕하세요. 저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! 참부모님 항상 2차 훈도회에
무척히 갈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훈도회를
할수 있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훈도회는 행복제이지만 훈도회의
심정의 도어인 홀로 아리랑을 항상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

홀로 아리랑 " 참부모님께서 부인 평양에서 부르신 노래이며 참부모님께서
많이 부르셔서 참부모님의 마음,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
저의 훈도생들에게서 그리 말씀하였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들
이 노래는 저의 마음과 같은 생각하였습니다. 우리나라 대한민국
만으로 존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. 하지만 모든 사랑이 화합과 평화,
통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큰 훈도회는 모든 학생들의
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신 분 역시 훈도생들이
매일 행복을 행복입니다. 훈도 생애를 행복 지켜서서 감사합니다.
대약 훈도 생애가 언제까지든 훈도회는 많았을 것입니다. 이것 또한
참부모님께서 지켜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또한 훈도 아리랑도 다른 것
같이 괴롭습니다. 하지만 참부모님께서 2차에서 훈도회를 하신 것을
안타하여 2차에서 좋은 일을 안리라고 생각합니다.

참부모님 사랑하 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
그런데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. 태몽에서 참부모님께서 안들어서
작은 생물을 드렸습니다. 그 순간 안들어서서 생물이 좋아하여 열었더니
제가 태어났다고 엄마께서 말씀하였습니다.

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신났습니다. 그후로 처음으로 창밖공
꿈을 꾸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잘 드셨고, 두번째는 창아버님께서
다시 깨어나 말씀을 하였고, 셋번째 꿈에선 창아버님께서 저의 이름을
부르시 아개를 도대어 주셨습니다. 저는 이꿈을 보고 정말 깨워주시
실재로는 만날 수 없지만 꿈에서라도 볼 수 있으니 너무
은혜로우셨다. ㅎㅎ 처음으로 창부모님께 훈육회 이야기도 하고
꿈 이야기도 하니까 창부모님 항상 저와 저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
건강하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!!

2017년 1월 11일 수요일

이은영 오린
20